

미디어아트로 보는 지구 연대기

최첨단 융복합 기술 활용

ACC '지구의 시간' 전시

11월 6일까지 복합전시 2관

대화형 영상과 소리로 풍경을 그려내는 사운드 스케이프, 공감각적 몰입형 영상 등 최첨단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지구와 인류의 모습을 담은 미디어아트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2관에서 개막된 융복합 콘텐츠 전시 '지구의 시간'이다.



인터랙티브 영상 '물의 순환' /ACC 제공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인류세(환경변화를 겪는 지구의 새로운 지질시대를 일컫는 말) 시대, 공존과 공멸의 갈림길 앞에 선 지구와 인류의 모습을 디지털로 그린 이번 전시는 융복합 콘텐츠 9점을 선보인다.

복합전시 2관 '상상원'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작품은 17×7m 규모의 광반도체(LED) 미디어 월 '미디어 게이트'다. 동굴을 모티브로 한 빛의 문을 지나면 '상상원' 내부에 축적된 거대한 지구의 시간을 마주한다.

인기 싱어송라이터 루시드 폴과 협업, 명상적인 음악과 빛이 변하는 모습을 융합해 매체예술로 그려낸 '원데이(One Day)' 가 하루 단위의 지구의 기억을 구현한다.

액체와 기체로 된 원시 지구로 아나몰픽(작시를 통해 입체감을 극대화한 기법)의 디지털 입자로 표현한 클로드 작가의 '라르고(Largo)'도 시선을 붙잡는다.

전시장 천장에 달린 대형 LED 상들리에와

지름 16m의 거대한 원형의 바닥 화면에서 폭포와 물의 파장이 표현되는 대화형(인터랙티브) 영상 '물의 순환', 거울의 빛 반사로 우주 공간에서 보는 지구의 시간을 표현한 '뉴 플래너리 시스템(New Planetary System)', 관람객의 음성으로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사운드 웨이브(Sound Wave)' 등 다채로운 매체예술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미래에서 온 이야기'는 ACC가 개발한 VR(가상현실) 실감 공연 '비비리'를 평면의 영상에서도 몰입적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나몰픽' 기법으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환경오염으로 황폐화된 지구에서 주인공 비비리와 비비리의 활약으로 펼쳐지는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인류세를 겪고 있는 지구에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를 전달한다.

'생명의 씨앗'은 '비비리'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생명의 씨앗'에 의해 지구의 자연이 치유되고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관람객의 참여로 영상과의 상호작용적 체험활동을 통해 이용자가 쉽고 흥미롭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오염으로 황폐화된 지구에서 관람객의 참여는 주인공 비비리의 치유를 도우며, 파괴된 환경을 회복시키는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개관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ACC 홈페이지(<http://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연극 '홀아비 형제'·'동백꽃' 진도 석교중·영암 도포중 찾는다

극단 초인 '신나는 예술여행'

극단 초인의 '연극으로 보는 한국문학' 코믹호러소 홀아비 형제와 청춘썸로맨스 동백꽃이 진도와 영암을 찾는다.

극단 초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 '신나는 예술여행'에 선정돼 전국 12개 중고등학교에서 무대를 펼친다. 이번 공연은 지난달 23일 광양여중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전남지역 학교로는 7일 오후 1시 20분 진도 석교중, 11일 오후 1시 10분 영암 도포중을 찾아가는 것이다.

코믹호러소 '홀아비 형제'는 1920년대 한국 대표 극작가 박승희(1901-1964)의 원작을 각색한 작품으로 1930년대 후반 극성스러운 일제의 만행에 쫓겨 산 밑이나 일구며 근근이 살아간 두 형제의 이야기다. 오십 줄에 들어가는 형은 그나마 젊은 시절 관청에 근무하며 주색도 제법 잡아보았지만,

아직 사십도 안 된 동생은 결혼은커녕 여자 구경도 못하고 가난에 찌들어 땅만 파며 보내는 세월이 그렇게 한스러울 수가 없다. 그런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겨울밤, 이 허름한 산중 오두막에 길 잃은 아낙 하나가 찾아들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청춘 썸 로맨스 '동백꽃'은 1920년대 한국 대표 소설가 김유정의 단편을 각색했다. 농촌을 배경으로 순박한 소녀와 소년의 사랑을 '봄날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의 알싸한 향기에 실어 전한다. 소작농의 아들인 '나'는 마름의 딸인 '점순이'의 적극적인 행동에 제대로 대거리 한번 못 하는 소극적이고 순박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에 비해 점순이는 당돌하고 적극적이며 집요하기까지 하다. 무뚝뚝하고 눈치 없는 '나'와 그런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점순이의 돌발적 행동이 작가 특유의 익살스러운 문체와 어우러져 풋풋한 웃음을 자아낸다. /최진화 기자



코믹호러소 '홀아비 형제' /극단 초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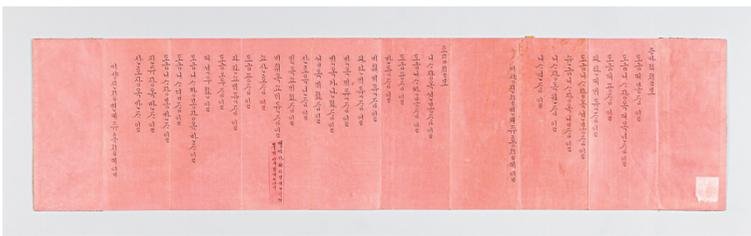
고궁박물관 7월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 공개

국립고궁박물관은 7월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 때 사용한 비녀 목록을 적은 기록'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기록물의 표지에는 '보잠발기(寶簪件記)'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보잠'은 보배로운 비녀를 의미하며 '발기'는 주로 왕실 의례에 쓰이는 물품 등을 작성한 목록을 일컫는다. 한자로는 각 건(件)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건기(件記)'라고 표기한다.

한글로 작성된 이 기록물은 두툼한 붉은색 종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 때 사용한 비녀 목록을 적은 기록.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이를 아코디언 식으로 접어 만들었다. 직사각형 형태로 만든 접 표지는 직물로 만들어졌고, 종이 표면에는 물품의 목록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일련의 표시를 한 뒤 흐트러짐 없이 글을 쓴 점이 눈에 띈다.

별도로 부착된 쪽지인 '첨지'에는 "병인년

가례"라는 표현이 있는데 1866년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왕실 가족의 혼례)에 쓰였던 비녀 등을 작성한 기록물임을 알 수 있다고 박물관 측은 전했다.

기록물은 4일부터 박물관 왕실의례 전시실에서 공개한다. /연할뉴스

남도국악원, 15일부터 굿음악 축제

2022 굿음악 축제가 오는 15-17일 진도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굿음악 축제는 '북녘의 굿과 음악'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남도국악원은 한국무속학회,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과 공동으로 축제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일반인 대상의 숙박 체험객 모집도 재개한다.

1955년 12월 북한 평양에서 녹음, 촬영된 '평양굿(평안도 잔상굿·다리굿)'도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이 평양굿은 국립국악원 북한음악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다.

야외 달맞이당에서는 함경도 망목굿과 황해도 만구대타굿을 실제로 선보인다.



북한 굿 /남도국악원 제공

16일 학술회의에서는 상영회와 공연으로 소개되는 평양굿 등에 대한 학술 연구 성과가 발표된다.

소형국악기와 부적 만들기, 재미로 보는 타로 점·토정비결 등의 부대행사도 열린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최진화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